

이식된 ‘광기’와 소설적 형상화*

— 191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송명진**

1. 서론
2. 합리적 이성의 타자로서 이식된 광기
3. 욕망과 억압의 대상 그리고 통과의례로서의 광기
4. 위장된 낭만성과 여성 욕망의 식민화
5. 결론

국문요약

서구로부터 전파된 합리적 사유는 기존의 인식 체계를 새롭게 변화시켰다. 특히, 비이성의 영역에서 초월적 세계관을 배제했던 합리적 이성은 자신의 타자로 정신질환으로서의 광기를 선택했다. 이는 서구에서 분석되고 길들여진 광기였다. 합리적 이성은 스스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이식된 광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본고는 1910년대 소설을 대상으로 근대적 광기가 소설화되는 과정에 대해 고찰했다.

1900년대 혹은 1910년대 신소설에서 광기는 더 이상 초월적인 것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합리적 이성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고 분석된 광기도 아니었다. 근대의 정신질환으로서의 광기는 1910년대 변안

* 이 논문은 2016년 8월 19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한 <대중서사학회 2016년 여름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부족한 원고를 읽고 도움을 주신 토론자 박재익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조교수

소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형상화되었다. 먼저, 〈쌍옥루〉의 이경자는 한국소설사에서 근대적 의료 체계로부터 최초로 정신병 진단을 받은 인물이었다. 이경자가 정신병을 앓은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를 타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었다. 한편, 〈장한몽〉의 심순애는 한국소설사에서 정신병동에 수용된 최초의 인물이었다. 심순애는 낭만성으로 위장된 이수일의 사랑에 의해 자신의 욕망을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다. 이 억압된 욕망의 표상이 곧 심순애가 앓았던 정신병이었다.

서구로부터 전파된 합리적 이성 그리고 그 이성과 함께 이식된 광기의 일면은 1910년대 소설들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서사화되었다. 비록 그 치유 과정을 상실한, 소설적 흥미에 불과한 광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식된 광기의 표상은 억압과 표현 사이의 긴장 관계를 통해 당대의 문제를 서사화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쌍옥루〉, 〈장한몽〉, 조중환, 이식된 광기, 합리적 이성, 정신병, 낭만성, 욕망, 억압)

1. 서론

〈구마검〉은 1908년 『제국신문』에 연재되었던 이해조의 대표적인 신소설이다. 신소설이 강조했던 ‘개화’의 가치는 〈구마검〉에서 ‘무당’과 ‘판사’의 대립으로 표상된다. 소설의 중심이 되는 함진해의 집안은 부친이 축적한 부로 서울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함진해 집안은 무당과 지관의 꼬임에 빠져 몰락의 길을 걷는다. 함진해의 세 번째 부인 최씨는 어릴 때부터 무당과 판수로 표상되는 무속신앙에 익숙한 인물이었다. 우두법을 시행하자는 함진해의 의견을 무

시하고 천연두를 별성마마라 칭하면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최씨 부인은 결국 늦게 얻은 아들을 잃고 만다. 한편, 집안의 모든 불행은 산소를 잘못 써서 그렇다는 지관의 말에 속은 함진해는 마침내 부친이 물려준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만다.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전근대적인 사유였다.

함진해 집안의 얽힌 실타래는 함진해 집안에 양자로 들어간 함중표에 의해 해결된다. 함중표는 중학교, 법률전문학교를 마치고 판사가 된다. 판사가 된 함중표는 예전에 자기 집안을 속여 부를 축적했던 무당과 지관을 잡아들여 죄를 묻는다. 무당과 지관으로 표상되는 비합리적 사유를 징치함으로써 재판과 같은 합리적 사유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설의 제목 '구마검'은 '마귀를 쫓는 칼'이란 뜻이다. 서구로부터 전파된 근대의 서막에서 '구마검'은 곧 재판과 같은 제도를 통해 실현된 합리적 이성이었다.

합리적 이성의 중요성은 식민지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대학에서 공중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창세는 미국과 한국 즉, 서구와 한국의 차이를 과학 정신으로 설명했다. “허위와 미신을 심히 미워하고 더러워하고 배척하는 정신”을 과학 정신으로 규정한 김창세는 “우리들에게는 과학적 지식은 아직 장식에 불과하여 밥 짓는 것, 불 때는 아궁이 만드는 것, 가옥을 건축하는 것, 심지어 생명에 관하는 질병조차도 과학에 의뢰함보다 미신에 의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민족적 장래를 의논할 때에도 과학적 학리에 의지하지 아니하는 듯합니다.”¹⁾라며 당시 조선의 비과학적 삶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근대성을 내면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곧 합리적 이성에 기초하여 초월

1) 김창세, 『과학과 종교, 과학적으로 알고 종교적으로 행하라』, 『동광』 12호, 1927.4, 57-60쪽.

적 세계관을 배제하는 과정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즉, 서구의 과학 정신은 조선의 초월적 세계관을 ‘미신’으로 새롭게 배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구로부터 전파된 합리적 이성은 홀로 존재하지 않았다. ‘미신’이 배제된 그 영역은 합리적 이성에 의해 길들여진, 합리적 이성과 함께 서구로부터 이식된 ‘광기’에 의해 대체되었다. 즉, 초월적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었던 조선은 서구의 ‘합리적 이성’과 그 대립항인 ‘광기’에 의해 새롭게 재편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서구로부터 이식된 광기는 합리적 이성에 의해 길들여진 광기였다. 푸코에 따르면, 실증적 의학의 시선이 광기에 ‘정신질환’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이후부터 광기는 더 이상 초월적 현상이 아니었다.²⁾ 종교적 차원에 존재했던 광기가 의학적 차원으로 새롭게 배치되면서 정신질환으로서의 광기가 새롭게 발명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합리적 이성은 자신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타자로서의 광기의 개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³⁾

1900년대부터 근대적 광기 즉, 정신질환으로서의 광기가 간간히 언급되기 시작했다. 최남선은 『소년』 2년2권 『집필인의 문장』에서 “나는 작년 여름 동안에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이때까지 쾌유치 못하여 걱정이외다.”라고 고백했다. 여기서 ‘작년 여름’은 『소년』이 창간되기 이전인 1908년 여름을 의미한다. 이보다 앞서 1905년 3월 2일자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러일전쟁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질병인 ‘정신병’이 생겼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전쟁의 위협과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 인간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섬으로 인해 정신병이 발생한다고 논의하고 있다.⁴⁾

2) 미셸 푸코, 『정신병과 심리학』, 박혜영 역, 문학동네, 2002, 113-129쪽.

3) 사라 밀스,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임경규 역, 앨피, 2008, 188-189쪽.

4) 『근세 전쟁에 정신병』, 『대한매일신보』, 1905.3.2.

이러한 정신병은 의학 제도에 의해 보편화되었다. 조선에 세워진 초기 근대서양식 병원 특히, 의료선교사였던 알렌의 제안에 의해 1885년에 설립된 제중원의 경우, '신경계 질환' 환자를 치료한 기록을 남겼으며, 1877년 일본 해군이 부산에 세운 제생의원 역시 1883년 4월부터 1885년 3월까지 네 명의 일본인 정신질환자를 치료했다고 보고했다.⁵⁾ 정신병과가 독립적으로 운용된 것은 식민지 시기에 이르러서다. 1913년 총독부 의원에 정신병과가 독립적으로 개설되고 정신병동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신경정신과 의사인 맥라렌에 의해 1923년 세브란스 병원에도 정신병동이 설치되었다.⁶⁾

의학 제도는 '광기'를 분석하고 체계화하면서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광기를 새롭게 배치했다. 근대적 의학 체계에 의해 제도화된 광기가 합리적 이성이 배제한 '미신'의 영역을 대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 소설에서 광기는 더 이상 초월적 세계와 접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리적 이성과 함께 서구로부터 이식된 광기이기 때문이다. 합리적 이성에 의해 설명되는 광기를 통해 이성은 자신의 경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

광기의 소설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192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1900년대 혹은 1910년대 소설을 대상으로 한 광기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먼저 권보드래는 신소설에서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광증의 양상을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광기로 표상되는 근대 여성성의 의미망을 고찰했다.⁷⁾ 여성과 광기의 연계성은 서연주에 의해 다시 강조되었다.

5) 여인석, 『세브란스 정신과의 설립과정과 인도주의적 치료전통의 형성』, 『의사학』 17권 1호, 대한의사학회, 2008, 57-59쪽.

6) 이부영, 『한국에서의 서양정신의학 100년』, 『의사학』 8권 2호, 대한의사학회, 1999, 159-160쪽.

서연주는 여성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부장적 사회에 저항하기 위해 광기를 형상화했다고 논의했다.⁸⁾ 한편, 변안소설인 『쌍옥루』와 『장한몽』에 형상화된 광기를 분석한 박진영은 광기를 여성 인물에 대한 윤리적 단죄라고 주장했다.⁹⁾

문학 속의 질병은 항상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다.¹⁰⁾ 본고는 이상의 기존 논의를 아우르면서, 근대소설에 형상화된 광기의 의미 그리고 광기에 대한 인식을 조망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식된 광기가 함축한 사회적 의미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는 또한 합리적 이성과 함께 서구로부터 이식된 광기가 소설 담론을 통해 보편화되는 방식을 밝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2. 합리적 이성의 타자로서 이식된 광기

김우진의 <화상설>은 1912년 동양서원에서 출판된 신소설이다. 이 시기 신소설이 대개 그렇듯이, <화상설> 역시 처첩간의 갈등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는 가정소설이다. 권참판은 유씨를 부인으로 두고 평양집과 진주집을 첩으로 삼았다. 권참판이 죽은 후, 평양집은 그 집의 권세와 재산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에 유씨 부인을 집에서 내쫓고 진주집을 살해했다. 그리고 권참판택에 양자로 들어간 권영철까지 독살하기에 이르렀

7) 권보드래,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출판, 2014, 230-255쪽.(저자는 여기에 언급된 내용의 시원은 「신소설의 여성성과 광기의 수사학」(2003년)이라고 밝히고 있다.)

8) 서연주, 「신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광기」, 『여성문학연구』 3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55-56쪽.

9) 박진영, 「1910년대 변안소설과 ‘실패한 연애의 시대」, 『상허학보』 15호, 상허학회, 2005, 288-289쪽.

10)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과지성사, 2007, 13-17쪽.

다. 소설의 결말은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평양집의 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이 세상에 생존하는 모든 인류는 일남일녀(一男一女)로써 부부를 정하고 가족의 원체를 짓는 법이라.”¹¹⁾라는 서술자의 논평은 〈화상설〉이 축첩제도의 폐해를 알리는 계몽적 의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업성을 화두로 삼았던 1910년대 다른 소설들과 큰 차이가 없는 〈화상설〉이지만 ‘광기’에 대한 인식적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소설이다. 광인에 대한 주요 인식은 진주집 이모가 평양집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억울하게 죽은 진주집의 한을 풀어주고자 했던 진주집 이모는 삼국지의 장비를 모시는 무당으로 자신을 속이고 평양집에 접근했다. 병을 낫고자 하는 평양집에게 진주집 이모는 일곱 가지 죄를 고백하게 했다. 죄의 회개를 통해서만 병이 나올 수 있다고 달랜 진주집 이모는 평양집이 고백한 죄를 가지고 장비 신(神)과 접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원이 성취될까 장군님께 문자와 보아야지』

하면서 동서남북에다 절을 한 번씩 하면서 입속 말로 무엇이라고 중얼중얼하더니, 전과 같이 계거품을 한없이 흘리며 아픈 줄도 모르고 사지육체를 이리저리 부딪쳐서 유혈이 낭자하도록 되어가지고 길길이 날뛰며,

『예구, 장군님 잘못하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미거한 것이 모르고 기망하였으니 한 번만 용서를 하시면 다시 써서 품하겠습니다. 예구예구 장군님, 용렬한 것을 불쌍이 여겨주시고 굶어보심을 바라나이다.』

이와 같이 누가 무슨 호령이나 하는 듯이 애걸복걸하여 빌며 정신을 못 차리더니, 한참만에 맑은 정신을 수습하여 일어나서 눈물을 흘려가며 말을 한다.¹²⁾

11) 김우진, 〈화상설〉, 전광용 외 편, 『한국신소설전집』 6권, 을유문화사, 1968, 217쪽.(이하에서는 저자, 작품명, 쪽수만 표기)

12) 김우진, 〈화상설〉, 213쪽.

초월적 세계관에서 광인은 일반적으로 ‘접신’의 형태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광기를 치유하는 방법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당시 신문은 이와 같은 사건을 심심찮게 다루었다. 광인의 손을 묶고 온 몸을 결박한 후, 징과 북을 치면서 경을 읽고 북송아 가지로 온 몸을 난타하거나 날카로운 침으로 몸 구석구석을 찌르는 축사(逐邪) 행위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었다.¹³⁾

평양집 역시 전주집 이모가 보여주는 모습을 접신의 상태로 이해했다. “참 장장군이라는 이가 영한 걸. 내가 일곱 가지 허물 쓰는데 모두 거짓말을 썼더니 호령이 내리셨어. 그런 영한 이 앞에 속일 수가 있나.”¹⁴⁾라면서 평양집은 자신이 지은 참혹한 죄를 낱낱이 고백했다. 한편, 평양집이 ‘접신’에 기초하여 세계를 이해했다면, 평양집을 속이고 죄를 고백하게 만든 전주집 이모는 그 초월적 세계관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이용하는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이성의 끝은 근대적 법치 체계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한 평양집 그리고 그녀를 도와 살인을 저지른 윤치용, 순돌이는 경찰서 및 법사(法舍)로 이송되었다.

김우진의 <화상설>은 광기를 다루는 두 가지 행태를 보여주었다. 분석되고 길들여진 광기를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광기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 이성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이 무렵 발표되었던 소설들 역시 더 이상 광기를 초월적 세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해조의 <화의 혈>에 등장하는 이시찰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광인이 되었으며, 이인직의 <은세계>에 등장하는

13) 『殺神하다가 殺人』, 『매일신보』 1915.3.11.

14) 김우진, <화상설>, 213-214쪽.

옥순·옥남의 어머니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정서상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 현실로 인해 광인이 되었다.

비록 최찬식의 <능라도>에 등장하는 흥도영처럼 남정린의 사과에 갑자기 광기가 사라지거나 <은세계>의 옥순·옥남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보자 다시 정상인이 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형상화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 시기 소설에 형상화된 광기들은 초월적 세계관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비하지만 당시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서구로부터 이식된 광기 즉, 합리적 이성에 의해 분석과 치료가 가능한 정신병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정신병으로 진단받고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질환으로서의 광기의 소설화는 1910년대 변안소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한 현실이었다.

3. 욕망과 억압의 대상 그리고 통과제의로서의 광기

『매일신보』에 연재된 최초의 변안소설은 조중환이 번안한 <쌍옥루>다. 1912년 7월 17일부터 다음해 2월 4일까지 총 151회에 걸쳐 연재된 <쌍옥루>는 키쿠치 유히菊池幽芳의 <나의 죄(己ガ罪)>를 번안한 것이다. <쌍옥루>는 『매일신보』에 연재된 최초의 변안소설이라는 것 이외에도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을 받은 여자 주인공이 최초로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경자를 진단한 의사는 “내가 지금 진찰하여 본 걸로 말씀하면 해산 전부터 벌써 ‘히스테리’라는 병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근심으로 마음을 수고로이 하여 ‘히스테리’가 변하여 지금은 우울증이라는 병이 되었는데 이 우울증이라 하는 병은 극히 경한 정신병이

라”¹⁵⁾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해조 작품에만 익숙했던 『매일신보』 독자는 정신병이라는 근대적 광기를 표현한 새로운 유형의 여성 인물을 경험하게 되었다.

조중환은 “두 줄의 눈물”이라는 의미로 ‘쌍옥루’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했다.¹⁶⁾ 이때 ‘눈물’은 이경자의 불행한 인생을 한 마디로 요약한 감정적 어휘라 할 수 있다. 홀로 경성에 올라와 학교에 다니던 이경자는 의학도인 서병삼의 유혹에 넘어가 정을 통하고 마침내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애초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서병삼에게 버림을 받은 후, 이경자는 홀로 애를 낳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경자가 우울증으로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아버지 이기장은 애를 유모에 맡겨 멀리 보냈다. 이후, 재상 정옥조와 결혼했지만, 과거가 탄로 난 이경자는 결국 정옥조와 헤어지고 만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감추지 않았던 이들은 마침내 다시 부부의 연을 이어 나갔다.

『쌍옥루』의 원작 제목은 ‘나의 죄’다. 결말은 비록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소설이 전개되는 내내 독자들은 이경자가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죄의식으로 조마조마해야 했다. 정옥조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정남이가 거짓말을 하자 이경자는 “이 어미가 죄가 많은 까닭”이라고 한탄했으며, 서병삼과의 사이에서 낳은 옥남과 정옥조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정남이가 동시에 바다에 빠져 죽을 때에도 이경자는 “하루에 형제를 다 죽였으니 모두 이 어미의 죄”라고 원통해했다. 이러한 죄의식이 결국에는 이경자로 하여금 정신병에 걸리게 한 것이었다. 정신병에 걸린 이경자는 심지어 자신이 낳은 자식까지 죽이려고 했다. “번쩍번쩍하는 칼을 손에 쥐

15) 조중환, 〈쌍옥루〉, 박진영 편, 현실문화연구, 2007, 153쪽. (이하에서는 저자, 작품명, 쪽수만 표기)

16) 조일재, 『번역회고』, 『삼천리』 6권 9호, 1934.9, 236쪽.

고 모기장을 한편으로 치워 놓고 정신 모르고 자는 어린아이를 바야흐로 칼로 찌르려 하는”¹⁷⁾ 광기어린 장면을 연출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경자를 정신병에 이르게 했던 죄의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이경자의 정신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경자 주변에 있던 남성들의 욕망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욕망이 충돌되는 지점이 바로 이경자의 내면이기 때문이다.

먼저 서병삼의 욕망이다. 서병삼은 자신의 생물학적 욕망에 충실한 인간이다. 아버지 허락 없이 서병삼과 정을 통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는 이경자에게 서병삼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그 불완전하고 되지 못한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으로 사람을 속박하려 하는 것은 참 틀린 인사지 …(중략)… 사람의 연애라 하는 것은 역시 정욕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정욕이라 하는 것은 사람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동물은 다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요”¹⁸⁾라고 말했다. 인간의 욕망을 동물의 생물학적 욕망과 동일시하고 있는 서병삼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서병삼은 이경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대와 서로 사귀어 오던 정의를 실로 일시 쾌락에 지나지 못하는 일”¹⁹⁾이라고 썼으며 이경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도 낙태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경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뒹을 서로 맹세”²⁰⁾하는 위선도 마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이경자에게 흑심을 품고서 “전일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 하오.”²¹⁾라는 비윤리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서병삼 태도의

17) 조중환, <쌍옥루>, 158쪽.

18) 조중환, <쌍옥루>, 79쪽.

19) 조중환, <쌍옥루>, 125쪽.

20) 조중환, <쌍옥루>, 55쪽.

기저에는 자본주의적 사물화의 논리가 깔려 있다.

자본주의적 사물화는 인간관계를 돈과 같은 사물들의 관계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화폐, 상품 등의 교환을 강조함으로써,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은폐시켰다. 이는 비단 경제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도 인간의 모든 감정은 사물화되어 나타난다. 사랑과 선물의 크기는 비례하며 애도와 액수의 관계 역시 비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사물화라고 할 수 있다.²²⁾ 서병삼은 이경자라는 인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서병삼과 헤어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오정당의 말에 이경자는 “내가 기생 삼패가 아니올시다.”라고 말했다. 이경자가 스스로를 상품화하는 ‘기생 삼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서병삼의 사물화 시도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경자가 서병삼을 허락했던 이유는 ‘단란한 가정’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경자는 “서병삼의 위인을 흠모하여 저와 같이 지혜 있고 재주 있는 남자와 한번 가정을 조직하는 날은 그 쾌락한 즐거움이 무한할 줄”²³⁾ 알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경자의 욕망에는 아버지 이기장 그리고 남편 정욱조와 같은 또 다른 남성들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라캉이 주장했듯이 모든 욕망은 기본적으로 타자의 욕망이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 손에 길러진 이경자에게 모든 행위의 기준은 ‘아버지’였다. 서병삼에게 버림을 받은 이후, 다시 결혼할 것을 원하는 아버지에게 이경자는 “이 더럽힌 몸을 가지고 누구에겐들 무슨 낯으로 시집을 가라고 하십니까”²⁴⁾라고 말했다. 훼손

21) 조중환, 〈쌍옥루〉, 292쪽.

22) 에덤 로버츠, 『트랜스 비평가 프레드릭 제임슨』, 광상순 역, 엘피, 2007, 89-94쪽 참고.

23) 조중환, 〈쌍옥루〉, 62쪽.

24) 조중환, 〈쌍옥루〉, 204쪽.

된 정절의 윤리관으로 자신의 육체를 인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로 표상되는, 근대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여성에 대한 시선이다.

여성의 정조에 대한 엄격한 시선은 남편 정육조에 이르러서 더욱 강박증적이다.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던 전처의 행위로 인해 정육조의 여성관은 더욱 왜곡되었다. “이 세상에 계집이라 하는 것은 제반 못된 짓은 은근히 모두 하면서 입을 쓱 씻고 시치미를 뚝 떼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문명하다고 추앙하는 구미 각국에서도 계집들의 행실이 거의 모두 이러하다 하기에 우리 동양은 여자의 절조가 오히려 문명하다는 서양보다 일층 나은 줄을 믿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올시다그려”²⁵⁾ 라는 정육조의 언급은 특히, 여성의 정조 부분에서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정육조가 이렇게 여성의 정조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부부 중심의 근대적 가정의 가장 필수적 요소가 여성의 정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경자와 혼인하고 나서 정육조가 “부인과 나 두 사람의 사이를 화합하는 물건은 즉 부인의 결백한 마음 하나뿐이요.”라고 말한 것은 근대적인 이상적 가정의 모습이 여성의 정조에 기초한 부부간의 신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부부 중심의 근대적 가정이 ‘열녀불경이부’라는 전근대적인 여성의 정조 관념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근대가 여전히 여성들에게 남성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설이 전개되는 동안, 이경자가 반복하여 말하는 ‘자기 죄’의 실상은 이러한 여러 남성들의 욕망이었다. 정육의 대상으로만 여성을 인식하는 서병삼의 사물화의 욕망 그리고 여성의 정절에 대한 아버지와 남편의 가부장적인 억압이 이경자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었다. 이러

25) 조중환, <쌍옥루>, 187쪽.

한 갈등이 산후(産後)와 같은 심신 허약 상태에서 정신병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경자를 진찰했던 의사가 아버지 이기장에게 “별안간에 당신을 보고 마음을 격동하여 놓아서 홀연 정신 착란이 되어서 정신병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이경자와 억압의 대상으로서의 이경자가 충돌하면서 근대적 광기가 발생한 것이다.

〈쌍옥루〉에서 이경자가 겪는 큰 위기는 두 차례다. 첫 번째 위기는 서병삼에게 버림을 받은 후 홀로 옥남이를 낳았을 때였다. 이때 이경자는 자살까지 시도했다. 두 번째 위기는 자신이 낳은 옥남과 정남이 동시에 바다에 빠져 죽었을 때였다. 이로 인해 이경자의 과거는 폭로되었으며 결국 남편 정옥조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 시련의 크기를 따질 수는 없지만 이를 받아들였던 이경자의 태도는 차이를 보였다. 첫 번째 시련에서 이경자는 정신병이 발발하여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련의 경우, 이경자는 오히려 애국부인회적십자평양지부병원 간호부로 깨끗하게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수동적 ‘대상’으로서의 이경자에서 능동적 ‘주체’로서의 이경자로의 변화에 의해 가능했다. 두 아이를 잃은 후, 서병삼은 이경자에게 다시 자신의 아내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경자는 “남의 신세는 다시는 아니 지자고 이 몸은 결심”했다고 거절했다. 이경자의 과거를 알게 된 남편 정옥조는 죄악에 대한 측은지심은 결코 아름다운 덕이 아니라면서 이경자와 헤어지고자 했다. 그러나 더 이상 서병삼에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과거의 이경자가 아니었다. 이혼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경자는 오히려 정옥조에게 “몸을 보중”하라고 걱정까지 했다. 딸의 불행을 들은 아버지 이기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딸에 대한 지배력을 자연스럽게 거둬갔다. 이를 통해 이경자는 직·간접적으로 타자의 욕망으로서의 대상화를 거부했다.

이경자가 정신병이라는 광기에 휩싸였던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를 타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었다. 사물화의 욕망의 대상으로, 가부장적 권위의 억압 대상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대상화시켰던 타자의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이경자는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충돌하는 타자들의 다양한 욕망들을 광기로 표출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광기가 타자의 대상화되기를 거부한 즉, 병원의 간호부로 능동적 삶을 살기 시작한 이경자에게서 더 이상 발발하는 않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따라서 <쌍옥루>는 이경자가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주체로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성장소설이면서 동시에 근대적 광기가 출현하는 하나의 원인을 조망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4. 위장된 낭만성과 여성 욕망의 식민화

일제 조종환이 변안한 <장한몽>은 1913년 5월 13일부터 그해 10월 1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²⁶⁾ 불과 5개월 정도의 짧은 연재에 불과했지만, 독자가 <장한몽>을 향유하는 시간은 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

26) <장한몽>은 <본편>과 <속편>으로 구분된다. <본편>은 1913.5.13부터 1913.10.1까지 연재되었으며, <속편>은 1915.5.25부터 1915.12.26까지 연재되었다. 그러나 노혜경의 논에 따르면, <장한몽>의 <본편>과 <속편>은 '장한몽'이라는 이름의 연속성만 있을 뿐, 각각의 원작은 같지 않다. <본편>은 오자키 코요(尾崎紅葉)의 <금색야차(金色夜叉)>를 저본으로 삼았으며, <속편>은 와타나베 가테이(渡邊霞亭)의 <소용돌이(渦卷)>를 변안한 것이다. 노혜경은 <장한몽>의 <속편>이 동일한 인물을 등장시켜 연속성을 의도했지만, 소설의 내용과 성격은 전혀 다르다고 논의했다. (노혜경, 『근대 대중소설의 변안과 의도된 번역의 굴절』, 『일어일문학연구』 84집 2권, 한국일어일학회, 2013, 194-203쪽.)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와타나베 가테이(渡邊霞亭)의 <소용돌이(渦卷)>를 굳이 "<장한몽> (속편)"이라고 이름 붙인 사실은 그만큼 <장한몽>의 대중성과 상업성이 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하다. 조중환은 “그 성질이 끝없이 부드럽고 순한 여성”이기 때문에 ‘심순애’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²⁷⁾ 이 부드럽고 순한 여성의 사랑과 간절함 그리고 그 눈물은 ‘신파’라는 하나의 전형을 창조했다.

〈장한몽〉의 이야기 구조는 단순하다. 김중배의 물질에 일시적으로 유혹된 심순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수일의 사랑으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다. 어릴 적부터 함께 키운 심순애와 이수일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다. 그러나 금강석으로 표상되는 김중배가 홀연히 나타나면서, 이수일과 심순애의 근대적 연애 더 나아가 이들이 상상했던 근대적 가정의 모습은 깨지고 만다. 그러나 이별의 원인이 반드시 김중배에게만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심순애는 “남자가 재주와 학식만 있으면 임의로 임신함과 같아서 여자는 자색으로 능히 부귀를 얻으리라 깊이 믿었으며 또는 아름다운 용모로 하여 용이히 부귀를 겸득하는 여자의 약간은 보았으되 자기와 같이 아름다운 여자는 보지 못하였던 생각”도 하면서 “귀하고 부하고 명망 있는 사람이 나를 맞으려 옥교를 보내 데려가고자 하는 인연이 반드시 돌아올 줄을 믿”²⁸⁾었다. 심순애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육체의 아름다움에 기초한 내면의 물질적 욕망에 대해 솔직했던 심순애는 자신의 개성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 근대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장한몽〉의 서술자는 이를 ‘허영심’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 허영심 때문에 이수일이 심순애를 사랑하는 만큼 심순애가 이수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허영심’이란 부정적 어휘는 심순애가

27) 조일재, 『번역회고』, 『삼천리』 6권 9호, 1934.9, 236쪽.

28) 조중환, 〈장한몽〉, 박진영 편, 현실문화연구, 2007, 37-38쪽.(이하에서는 저자, 작품명, 쪽수만 표기)

근대적 개인으로서 느끼는 욕망을 억압하는 일종의 낙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심순애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내면화된 욕망을 쉽게 감추지 못했다.

이수일과 이별한 이후에 심순애는 오직 이수일만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심순애를 '허영심'으로 재단했던 서술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 불과했다. 어느 날 심순애는 김중배가 일본 유학에서 만났던 박용학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어 갔다. 그 집에서 심부름하는 어린 정희는 처음 본 심순애에 대해 “그 부인의 금 시곱줄을 목에 걸어 늘인 것과 좌우 손에 금강석 반지며 금반지를 사오 개씩 끼고 있는 것과 금비녀, 금귀이개의 꽃은 것과 용모와 태도의 아름다움은 덩을 타더라도 가할 것이요 마차를 타더라도 가”²⁹⁾하다고 묘사했다. 이수일과 심순애 앞에 금강석을 번쩍이며 처음 나타났던 김중배의 모습과 정희의 눈에 비친 심순애의 모습은 동일하다. 서술자가 언급한 것처럼, 심순애가 이수일을 그리워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녀의 무의식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의 전개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심순애를 끊임없이 이수일에게로 회귀하는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심순애는 자신이 배신했던 이수일에게 왜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심순애를 둘러싼 소설적 상황이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남편에게도 정절을 강요하는 무리수로 왜곡되기도 했다. 그래서 남편 김중배에게 정조를 잃은(?) 심순애는 대동강으로 몸을 던졌던 것이다. 우연히 심순애를 구하게 된 이수일의 친구 백낙관은 “김중배에게로 출가한 후 오륙 년이 되었으되 한 번도 몸을 허락한 일이 없고 다만 수일을 위하여 절개를 지키고 있다가 오늘 저녁에는 우연히 김중배의 음흉한 계책에

29) 조중환, <장한몽>, 162쪽.

빠진 바 되어 드디어 몸을 더럽히고 수일에게 대하여 의리도 없거니와 원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을 이별코자 결심하였더라 하니 그 마음은 내가 대단 가상이 여기는 바이요.”³⁰⁾라는 찬사를 늘어놓았다.

1910년대 지배적 화두는 ‘사랑’이었다. “사랑이란 말은 듣고, 맛은 못 본 조선인”이라고 자신을 규정했던 이광수는 당시 조선의 결혼 풍습에 대해 “우리 조선 남녀는 그 부모의 완구와 생식하는 기계가 되고 마는 것이로소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사랑 없는 결혼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³¹⁾ ‘사랑’이라는 감정 역시 일종의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재크린 살스비는 친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얻는 이익이 더 많아질 때, 연애결혼이 사회적으로 적합한 제도로 인식된다고 논의했다.³²⁾ 즉, 사랑의 낭만성 또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윤심덕이 김우진과 함께 현해탄에 몸을 던지고 기생 강명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죽음을 선택했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1920년대의 연애 사건들은 따라서 1910년대 서구화 혹은 근대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었던 ‘낭만적 사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장한몽〉 역시 1910년대 새롭게 재구성되는 사랑의 방식에 대해 서사화했다. “부부간에 행복이라 하는 것은 전혀 애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애정이 없으면 부부라고 말할 것이 있다.”³³⁾라고 주장했던 이수일은 최원보와 옥향이 정사(情死)를 시도하는 장면에서 낭만적 사랑의 원형을 발견한다. “나는 돈이 없어서 계집하고 한가지로 정사(情死)하였다는 사람의 조소는 들을지언정 계집을 팔아 가지고 저 사람은 간신히 균색을

30) 조중환, 〈장한몽〉, 295쪽.

31) 이광수, 「어린 벗에게」, 『청춘』 1917.11월호.

32) 재크린 살스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찬길 역, 민음사, 1985, 15-16쪽.

33) 조중환, 〈장한몽〉, 101쪽.

면하였다는 조롱을 듣기 싫어요.”라고 말하는 최원보에 대해 옥향은 “만일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나 혼자 살아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당신이 돌아가시면 나도 함께 죽겠노라”고 다짐했던 것이다.³⁴⁾

〈장한몽〉에서 이수일은 낭만적 사랑의 화신으로 형상화된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이수일을 키워준 사람은 심순애의 아버지 심택이었다. 심순애를 김중배와 결혼시키기 위해, 심택은 이수일에게 심순애와의 결혼 대신 일본 유학을 권유한다. 자신을 키워준 은인의 말이라 거역하지 못하면서도 이수일은 내심 심순애의 사랑을 믿는다. “저 순애만 나를 멀리 버리지 아니하면 착가도 소용이 없을 것이요 은인의 무거운 말도 두려울 것이 없을지니 다만 이제 믿고 바랄 것은 순애의 마음 하나뿐이로다.”³⁵⁾ 그러나 심순애의 배신은 객관적 세계의 불가능성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수일의 낭만성을 파괴했다. 심순애와 이별한 후, 이수일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무전대금업자’, ‘고리대금업자’가 이수일이 새롭게 얻게 된 삶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수일은 ‘분풀이’로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고 자책했다. ‘사랑’을 잃은 이수일이 ‘사람’이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수일은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사랑의 낭만성’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수일에게 ‘사랑’은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바꿔주는 낭만적 풍경이었다. 그러나 심순애에게 ‘사랑’은 단지 자신의 욕망을 억압해야만 하는 강박적 요소에 불과했다. 자신의 배신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이수일로 인해, 심순애는 마침내 정신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녀의 광기는 ‘급성 델랑클리아’로 판정되었으며, 심순애는 한국소설사 최초로 정신병원에

34) 조중환, 〈장한몽〉, 443-444쪽.

35) 조중환, 〈장한몽〉, 69쪽.

입원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심순애의 정신병을 고친 것은 이수일의 용서였다. 욕망하는 자아와 낭만성으로 위장된 강요된 정조 사이에서, 심순애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고 자신의 결여를 낭만적 사랑(?)으로 봉합함으로써 정신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수일이 강조하는 낭만적 사랑은 그 이면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택의 집에 얹혀사는 이수일은 데릴사위와 같은 처지에 놓인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결여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만일 저 사람이 마음속에 추호라도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보이면 옥황상제의 딸이 아내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그 인연을 끊어 버리고 말 터이야.”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심순애에게는 절대적 사랑을 강요했지만 정작 이수일 자신은 사랑보다는 자존심이 우선이었다. 낭만성으로 점철된 사랑은 심순애에게만 강요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심순애의 배신은 이수일에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오히려 심순애가 떠남으로써 자신이 직면해야만 하는 현실 즉, 천애고아로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결여감과 그로 인한 자존심의 상처가 더 큰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수일은 김중배가 파산했다는 소식에 웃음을 지었으며 옥향이 전해주는 김중배의 치졸함을 은근히 비웃을 수 있었다. 이수일이 심순애에게 강요한 낭만적 사랑의 본질은 결국 심순애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던 셈이다. 심순애를 빼앗김으로써 자신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결여를 감추기 위해, 이수일은 심순애에게 ‘사랑의 낭만성’을 주입했던 것이다. 이수일이 생각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한번 몸을 더럽힌 이상에는 그보다 몇십 배나 되는 덕행을 닦았다 하기로 그 더럽혔던 몸이 다시 결백한 몸으로 돌아오지는 못한다.”³⁶⁾와 같은 여성의 정조 문제로 귀결

36) 조중환, <장한몽>, 350쪽.

짓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김중배가 심순애가 아닌 심순애의 미모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수일 역시 심순애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심순애와 이별함으로써 마주하게 될 자신의 열등감이 두려웠던 것이다. 자신의 물질적 욕망에 눈뜨기 시작한 심순애는 이수일에게 일종의 불안이었다. 여성이 스스로를 하나의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전근대 남성에게는 일종의 불안으로 기능했다.³⁷⁾ 특히, 남성의 지배력이 불안정해질수록 여성에 대한 통제는 더욱 심해진다.³⁸⁾ 여성에 대해 다잡는 행위는 남성이 느끼는 불안을 감추기 위한 행위다. 이수일은 심순애로 인해 야기된 불안을 감추기 위한 전략으로 낭만적 사랑으로 위장된 정절을 강요했던 것이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심순애는 결국 이수일과 단란한 가정을 꾸린다. 그러나 이 단란한 가정은 심순애의 욕망을 억압함으로써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이수일이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내세웠던 낭만적 사랑은 심순애의 물질적 욕망을 식민화함으로써 비로소 근대적 가정의 형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근대적 여성이 자각한 개인의 욕망을 광기로 규정하고 억압하는 과정이 곧 부부 중심의 근대적 가정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5. 결론

서구에서 근대성은 기독교 중심의 사회에서 이성 중심의 사회로 이행

37) 이은경, 『광기/자살/능욕의 모성공간』,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111쪽.

38) 김경미, 『개화기 열녀전 연구』, 『국어국문학』 132호, 국어국문학회, 2002, 205-206쪽.

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합리적 이성은 곧 근대성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서구로부터 이식된 근대적 사유는 기존의 인식 체계를 새롭게 변화시켰다. 특히, 초월적 세계 인식은 미신이라는 낙인과 함께 배제되었다. 그러나 서구로부터 전파된 것은 합리적 이성만이 아니었다. 비이성의 영역에서 초월적 세계관을 배제한 후 이를 대체한 것은 이미 서구에서 이성에 의해 분석되고 길들여진 정신질환으로서의 광기였다. 이성의 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성에 의해 길들여진 ‘이식된 광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1920년대는 한국소설사에서 다양한 광인들이 출현했던 시기였다.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에 등장하는 광인 김창억은 식민지 지식인의 심리적 억압을 보여주었으며 김동인의 〈광염소나타〉에 나오는 백성수는 예술적 광기의 윤리적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수영은 1920년대 근대문학의 특징을 병리성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인간의 진실 혹은 본질은 이러한 병리적 주체에 의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³⁹⁾

그런데 1920년대 소설 인물들이 보여주는 광기는 모두 이식된 광기였다. 초월적 세계관과 연결된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광기가 아니었다. 때로는 숭고하고 때로는 위협적인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다. 서구의 합리적 이성에 의해 분석되고 길들여진 광기가 바로 1920년대 소설 인물들이 보여주었던 광기였다. 그런데 이러한 광기의 출현은 1910년대 소설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 본고는 1910년대 소설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근대적 광기의 형태가 소설화되는 과정에 대해 고찰했다.

1900년대 혹은 1910년대 신소설에서 광기는 더 이상 초월적인 것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죄의식과 관련되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시적 도피 현상으로 광기는 출현했다. 혹은

39) 이수영, 『섹슈얼리티와 광기』, 그린비, 2008, 36쪽.

초월적 세계관으로 인식하는 광기와 합리적 세계관으로 인식하는 광기를 완고와 개화 혹은 악인과 선인으로 대립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기는 초월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리적 이성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고 분석된 것은 아니었다. 근대의 정신질환으로서의 광기는 1910년대 변안소설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조중환이 변안한 〈쌍옥루〉의 이경자는 한국소설사에서 최초로 근대적 의료 체계로부터 정신병 진단을 받은 인물이었다. 이경자가 정신병을 앓은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를 타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었다. 서병삼의 욕망의 대상으로, 아버지 이기장 그리고 남편 정옥조의 가부장적 권위의 억압 대상으로 자신을 소외시켰기 때문에 이경자는 정신병에 걸렸던 것이다. 이경자의 정신병은 이경자가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주체로 변화했을 때 비로소 사라졌다. 따라서 〈쌍옥루〉는 한 여성이 대상에서 주체로의 변화 과정을 정신병을 매개로 보여주는 일종의 성장소설이라 할 수 있다.

조중환이 변안한 〈장한몽〉의 심순애는 한국소설사에서 정신병동에 수용된 최초의 인물이었다. 심순애는 김중배와 같은 물질적 욕망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 욕망은 이수일의 낭만적 사랑에 의해 억압되었다. 그러나 이수일이 강조하는 낭만성의 이면에는 여성의 정조에 대한 가부장적 권위를 담고 있었다. 여성이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인식하는 것은 남성에게는 불안으로 다가온다. 이 불안을 메꾸기 위해 강요하는 것이 낭만성으로 위장된 정조 개념이었던 것이다. 낭만성으로 위장된 사랑(?)에 의해 식민화된 여성, 그 여성의 억압된 욕망에 대한 표상이 곧 심순애가 앓았던 정신병이었다.

서구로부터 전파된 합리적 이성 그리고 그 이성과 함께 이식된 광기

의 일면은 1910년대 소설들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서사화되었다. 비록 그 치유 과정을 상실한 그래서 근대의 의장(意匠)에 불과한 정신질환으로서의 광기일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은 단순히 소설적 흥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정신병은 억압과 표현 사이의 긴장 관계를 통해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서사화하는 데에 기여했다. <쌍옥루>의 이경자와 <장한몽>의 심순애가 이식된 광기를 매개로 드러내는 욕망은 곧 근대를 감내하는 인물들의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우진, 『화상설』, 전광용 외 편, 『한국신소설전집』 6권, 을유문화사, 1968.
조중환, 『장한몽』, 박진영 편, 현실문화연구, 2007.
_____, 『쌍옥루』, 박진영 편, 현실문화연구, 2007.

2. 논문과 단행본

- 권보드래,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출판, 2014.
김경미, 『개화기 열녀전 연구』, 『국어국문학』 132호, 국어국문학회, 2002, 187-211쪽.
김창세, 『과학과 종교, 과학적으로 알고 종교적으로 행하라』, 『동광』 12호, 1927.4월호.
노혜경, 『근대 대중소설의 변안과 의도된 번역의 굴절』, 『일어일문학연구』 84집 2권, 한국일어일문학회, 2013, 193-219쪽.
박진영, 『1910년대 변안소설과 '실패한 연애'의 시대』, 『상허학보』 15호, 2005, 273-302쪽.
_____, 『번역과 변안의 시대』, 소명출판, 2011.
서연주, 『신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광기』, 『여성문학연구』 3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39-60쪽.
여인석, 『세브란스 정신과의 설립과정과 인도주의적 치료전통의 형성』, 『의사학』 17권 1호, 대한의사학회, 2008, 57-74쪽.
우미영, 『한국 근대 소설에 나타난 광기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2.
이광수, 『어린 벗에게』, 『청춘』 1917.11월호.
이방현, 『일제시대 신문에 나타난 정신질환자 사회표상』,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이부영, 『한국에서의 서양정신의학 100년』, 『의사학』 8권 2호, 대한의사학회, 1999, 157-168쪽.
이수영, 『섹슈얼리티와 광기』, 그린비, 2008.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과지성사, 2007.
조일재, 『번역회고』, 『삼천리』 6권 9호, 1934.9월호.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미셸 푸코, 『정신병과 심리학』, 박혜영 역, 문학동네, 2002.
사라 밀스,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임경규 역, 앨피, 2008.
애덤 로버츠, 『트랜스 비평가 프레드릭 제임슨』, 곽상순 역, 앨피, 2007.

112 대중서사연구 제22권 4호

재크린 살스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찬길 역, 민음사, 1985.

『근세 전쟁에 정신병』, 『대한매일신보』, 1905.3.2.

『殺神하다가 殺人』, 『매일신보』 1915.3.11.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Fictionalization of the Transplanted 'Madness'
- Based on the Novels of the 1910s

Song, Myung-Jin(Kyonggi University)

Rational reason propagated from the West has changed the existing system of awareness. In particular, the rational reason that had excluded transcendental perspective of the world in non-rational area chose madness as a mental illness to represent oneself in others. This was the madness analyzed and domesticated in the Western world. The rational reason needed this 'transplanted madness' to clarify itself.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of the modern madness becoming fictionalized with the novels in the 1910s.

The new novels in the 1900s or 1910s no longer treated madness as transcendent. But this does not mean that madness was fully explained and analyzed by the rational reason. The madness as a modern mental illness was finally shaped into images only in the 1910s by the adapted novels. First of all, Lee Kyung-ja in *Ssangoklu* was the first person who was diagnosed to have a psychiatric illness by the modern medical system in the history of Korean novels. The fundamental reason why Lee Kyung-ja had to battle a mental illness was because she degraded herself to be the subject of the others.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 Sim Sun-ae in *Janghanmong* was the first person who was put to a psychiatric hospital in the history of Korean novels. Sim Sun-ae was a character who was forced to suppress her desire because of the love of Lee Su-il disguised as a romance. This representation of repressed desire was the psychotic illness Sim Sun-ae had to suffer.

A side of rational reason propagated from the West and a side of madness transplanted together with the reason came to be narrated in earnest in the novels of the 1910s. It could be madness as a fictional excitement which lost a healing process. Nevertheless, the representation of the transplanted madness could be said to have contributed to the fictionalization of the contemporary issues through the tension between repression and expression.

114 대중서사연구 제22권 4호

(Key Words: *Ssangoklu*, *Janghanmong*, Jo Jung-hwan, the transplanted madness, rational reason, psychiatric illness, romance, desire, repression)

논문투고일 : 2016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1월 2일

수정완료일 : 2016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1월 13일